

2014년 1~3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특징

- 중국 상무부는 10월 27일 2014년 1~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약 4606.4억위안 (약 749.6억달러)을 기록하면서 작년동기대비 21.6%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중국의 ODI 규모(Flow)는 2009년 56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주춤하였으나,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1078억달러로 22.8%의 증가율을 기록함.
- 2005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국의 유럽지역에 대한 누적투자액은 영국이 236억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부동산, 유통 등에 투자하고 있음.

그림 1. 중국 ODI 및 증가율



표 1. 중국기업의 유럽 누적투자액
(2005년 6월~2014년 6월)

국가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영국	236억달러
프랑스	106억달러
이탈리아	69억달러
독일	59억달러
그리스	55억달러
포르투갈	54억달러
스페인	24억달러

- (특징)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유럽지역에의 투자 증가, 인수합병(M&A) 증가,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유럽지역) 2014년 상반기에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
 - 중국이 2025년까지 영국의 인프라 부문(에너지, 부동산, 운송)에 약 1,69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FT)

표 2. 2014년 유럽에서의 중국기업의 주요 M&A

	시범기업
1월	Greenland 그룹이 9.7억달러에 런던 Wandsworth의 방치된 맥주공장을 인수함.
5월	중국항공공업그룹이 5.9억달러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하이리다를 인수함.
6월	중국 완다그룹이 3.3억달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빌딩(Edificio Espana)을 인수
7월	중국 국가외환국이 이태리 상장회사인 Fiat의 2% 지분을 인수
10월	중국 국영기업인 브라이트 푸드 그룹이 이탈리아 올리브유 제조업체인 Salvo 그룹의 주요 지분을 취득함.(약 3억 3000만유로)

- (M&A)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3분기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M&A)은 176건이며 작년동기대비 31% 증가함.

○ 거래총액도 408억달러로 10억달러 규모 이상의 거래도 14건을 포함함.

- (민영기업 증가) 2014년 1~3분기 민영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이 국유기업의 2배이며 거래 총액도 동기 대비 120% 증가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유기업들이 유럽투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이치뱅크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민영기업이 비중이 30%까지 확대되었음.

■ (전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제도 간편화, 막대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4년 10월 6일 중국 상무부는 개정된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을 발표하고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개정 전에는 1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은 상무부에, 1000만달러 이상 1억 달러 이하의 해외투자, 에너지, 광산류 해외투자는 성급 상무부서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음.

○ 또한, 신고 등록완료일과 심사비준 처리일도 단축했으며, 해외투자기업의 신고 신청 자료도 대폭 축소되었음.

- 올해 처음으로 ODI(아웃바운드 투자)가 FDI(인파운드 투자)를 초과하여 중국이 자본의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됨.

- 그러나, 장기전인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고,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정책으로 인한 해외로의 도피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음.

(문익준 부연구위원)